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09. 11. 17 ~ 11. 21 (4박5일)
- 방 문 국 : 일 본
- 연 수 단 : 11명(의원7명, 공무원4명)

2009년 12월 4일



구 미 시 의 회

공무국외연수개요

1. 연 수 국 : 일 본

2. 연수배경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원의 자치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09. 11. 17 ~ 11. 21 <4박5일>

4. 보고서 작성자 : 전인철 의원 외 10명

5.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연번	수행직원	성 명
1	기획행정위원회	전인철 의원	1	행 정 5 급	곽 중 현
2	“	박순이 의원	2	행 정 7 급	박 말 순
3	“	김상조 의원	3	“	박 영 훈
4	산업건설위원회	허 복 의원	4	기 능 직	김 영 조
5	“	이갑선 의원			
6	“	길윤옥 의원			
7	“	윤서규 의원			

◁ 목 차 ▷

I. 연수개요

1. 연수의 목적
2. 연수세부내용

II. 본 론

1. 일본소개
2. 주요업무 수행내용
3. 주요방문지
 - 아리아케 물재생센터
 - 고시가야 이온 레이크 타운
 - 미나미타마 화장장
 - 오다이바 임해부도심
 - 사쿠지이 노인 복지시설
 - 오오타 이찌바 재래화훼시장

III. 결 론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서 론

□ 연수의 목적

- 전문 연수기관의 위탁연수를 통해 지역현안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특히, 행정안전부의 2009년 12월 31까지의 공사존폐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구미 원예수출공사의 국화수출지인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화훼분야)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수출품의 현황파악과 자료를 수집하여 원예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나아갈 방향 설정에 참고하고자 함.

□ 연수세부내용

- 기 간 : 2009. 11. 17(화) ~ 11. 21(토) 4박 5일
- 참여인원 : 11명 (의원 7/ 직원 4)
- 세부일정

날 짜	연 수 일 정	비 고
제 1 일 11/17(화)	• 공식일정 : 아리아케 하수처리 시설 견학 • 현장시찰 : 신주쿠 신도청 전망대 조망	동 경
제 2 일 11/18(수)	• 공식일정 : 고시가야 이온 레이크 타운 현장시찰 • 공식일정 : 미나미타미 화장장 방문 및 시설견학	동 경 사이타마현 타마시
제 3 일 11/19(목)	• 현장시찰 : 태양광 발전시설 시찰 • 공식일정 : 노인 유료 복지시설 방문 및 견학 • 현장시찰 : 오다이바 임해 부도심 견학	이사와 가와사키 동 경
제 4 일 11/20(금)	• 공식일정 : 오오타 이찌바 재래시장 (화훼부문) 견학 - 화훼 유통관리 현황조사 • 국립공원관리 및 운영실태 현장체험	동 경 닛코
제 5 일 11/21(토)	• 문화탐방 - 동경 최고의 사찰인 아사쿠사 관음사 - 나카미세 도오리 등 견학	동 경

II. 본 론

□ 일본 소개



【 일반 개요 】

- 공식명칭 : 니혼(Japan)
- 인구 : 127,674,000 / • 면적 : 377,899km² / 수도 : 도쿄
- 정체·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국왕/총리
- 공식 언어 : 일본어 / • 독립년월일 : BC 660
- 화폐단위 : 엔(yen/ ¥)
- 국가(國歌) : Kimigayo ("His Majesty's Reign")
- 기 후 :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
- 주요민족 : 일본 족 (Japanese 98%)
- 종 교 : 신도(Shintoism), 불교(Buddism), 기독교(Christianity)

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으로 2,800km에 걸쳐 길게 늘어져 있다. 4개의 주요 섬과 4,000여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주요 섬은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홋카이도(北海道)이다.

총면적은 약 38만km²로 거의 대부분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고작16% 정도이다. 현재 일본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천황은 상징적 원수로 일본 헌법에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가원수는 125대 아키히토일왕 (明仁天皇)이고, 총리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2009년도 현재)행정구역상으로는 47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구획이 나뉘지며, 동경도(도오교토도(東京都), 북해도(홋카이도,北海道), 경도부(교토부,京都府), 대판부(오사카,大阪府)등과 43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주요업무 수행내용

- 아리아케 하수처리 시설 방문
 - 시설견학 및 운영실태 조사(질의응답)
- 고시가야 이온 레이크타운 방문
 - 친환경 호수주변 공간 개발배경 조사(질의응답)
- 미나미타미 화장장 방문
 - 화장장 건립의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질의응답)
- 노인유료 복지시설 방문(사쿠지이 노인복지시설)
 - 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조사(질의응답)
- 오오타 이찌바 재래시장(화훼부문) 방문
 - 일본 절화시장의 예측
 - 한국의 국화수출에 대한 문제점 및 구미원예수출공사의 나아갈 방향 제시(질의응답)

□ 주 요 방 문 지

◀ 아리아케 물재생 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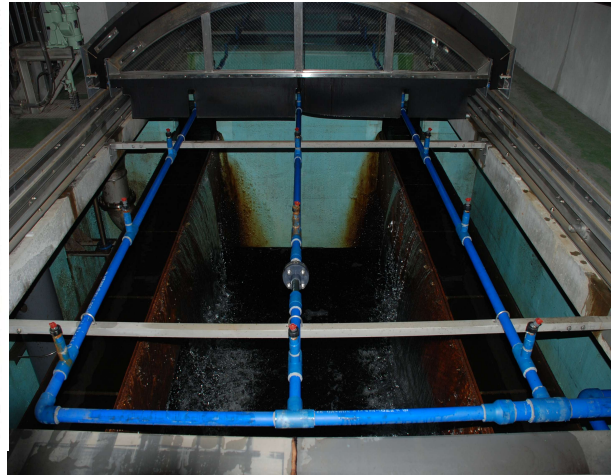
아리아케 물재생센터는, 임해부도심
크린센터 안에 설치된, 21세기를 향한
미래형 물재생 센터로써, 1995년 9월
에 일부를 가동해, 1996년 7월에 물
처리 운전을 개시한 구부에서 12
번째의 물재생센터이다.





◁ 현장 담당자의 질의응답과 시설견학 ▷

油斷, 快適, 下水道를 목표로 하고 지방(동경)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온 오수(하수)를 처리해 재생수를 생산, 일반 주택에서 생활용수, 학교 공장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센터 시설의 위층



부분은 하수도 박물관, 체육관, 전망대, 온수 풀장, 트레이닝룸, 주차장, 테니스장 16면 등 복합이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편의시설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관리는 구청, 시청(지자체)에서 하고 있었다.

하수시설 계획의 초기에는 주민과의 마찰이 크게 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확실한 공법의 탈취시설 도입시공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배기 배출되는 지상

부분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전체시설의 30%를 주민에게 서비스공간으로 제공하여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구미시 하수처리장의 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런던협약 등으로 한국의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산출되는 슬러지 처리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은 장기적인 대책과 자원의 재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점진적인 시설에 대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 슬러지로 만든 재생용품 ▷

현재 동경에는 5개의 소각로가 있고,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다. 또한, 슬러지를 이용하여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탄화물을 만들어 연료로 공급하거나 재활용하여 인도 블록이나 타일 등을 만든다고 한다. 슬러지 소각시설을 새로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완벽한 시공을 통해 신뢰를 얻어 별반 어려움 없이 관리 운영되고 있었다.

◀ 고시가야 이온 레이크 타운 ▶



도심외곽에 있는 큰 호수를 이용한 친환경 신도시를 계획, 건설하고 있는 곳으로 건강을 위한 쾌적한 주택, 지역생활환경의 향상, 지구환경을 위한 책임과 아울러 차세대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현존하는 사람들의 책임임을 강조, '環境 負荷 輕減 目標', 기업은 Co2 절감목표, 태양광



발전 판넬을 사용하여 전기를 발전기, 태양 열온수기, 빗물의 재이용을 위한 雨水탱크 설치, 지중열의 온도차를 이용한 주택온도 조절시설, 친환경 자연소재 사용 등을 도입한 환경과 공생생활을 위한 미래 신도시건설을 계획 시행하고 있었다.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로, 항상 같은 수량의 물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수(유지수)의 여유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가야 호수 주변의 元荒川으로부터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관 개방과 폐쇄를 통해 공급하고 있었으며, 간헐 있는 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호수 주변의 元荒川로부터



배수관에 정화용 배관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었다.

또한 호수의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인데 인공호수 조성 당시 사유지를 취득시 주민의 반발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지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농가는 환지를 하였고, 현재 아파트나 상업시설인 곳은 당시의 지주인 채로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반발보다는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결과는 수년이 걸릴 예정으로 있다고 답했다.

◀ 미나미타마(南多摩) 화장장 ▶



미나미타마(南多摩) 화장장은 기존 국내의 화장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곳이었다. 처음 구미시 의회가 요구한 곳은 일본 내 최근 신설된 화장장으로 그곳 설치 예정지의 주민 반응과 화장장으로 그곳 설치예정지의 주민반응과 주민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상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목표로 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다른 장소 섭외로 그 본래의 목표는 얻을 수 없었고 빗속에 3시간 가량의 버스를 타고 힘들게 방문한 의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곳 책임자의 성의있는 설명에 타지역의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5개정도의 시를 묶어서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100%화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서도 화장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미지는 좋은 것이 아니어서 나리타시, 야치마타시, 토미사토시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야스토미 화장장은 설립초기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무마했으며, 주민들은 3개 시로부터 매년 8000만엔의 위탁운영료를 받고 직접 운영, 수익금을 배분하고, 또 도시가스와 현대적 집진시설을 사용해 오염도를 극소화하고 화장장 옆에 체육시설도 갖춰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이 화장장을 사용하면 그 지역시민이 사용하는 요금의 10배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 화장장 】



【 식 장 】



【 대 합 실 】

◀ 오다이바 임해부도심(臨海副都心) ▶

오다이바(お台場)라는 지명은 막부 시대(1853년)에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며 나타난 미국의 흑선에 대항하기 위해 막부가 긴급 방어 수단으로 대포를 설치했던 인공 섬이다. 하지만 막부의 노력이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미국에 문호를 강제 개방해야했다. 이후 오랫동안 버림받아왔던 이 땅을 80년대 이후 포화 상태에 놓인 도시의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신도심지로 만들어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모습의 오다이바(お台場)를 만들었다.

오다이바(お台場)는 드넓은 인공 해변, 넓고 쾌적한 푸른 공원,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최신식 쇼핑 타운, 방송국, 호텔, 박물관, 국제 전시관 등의 다채로운 시설들이 모여 있고 특히 세계의 많은 자동차회사에서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리고 주변에 강 건너 동경타워와 시각적으로 연결된 작은 자유여신상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고 그것을 다시 관광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인 안목과 마인드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바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인공 해변에서는 윈드서핑과 수상 스키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해변을 거니는 연인들과 조개를 줍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쿄의 또 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

◀ 사쿠지이 노인 복지시설 ▶



●소재지 : 동경도 네리마구(練馬區) 샤쿠지이다이(石神井台) 7-16-11

●근처역 : 세이부신주쿠(西武新宿) 선 「무사시세키(武藏關)역」 도보 10분 (약 1km)

- 부지면적 : 1768.30m² (병설 사업)
- 건물총건평 : 3538.33m²
- 거실면적 거실 수 : 21.41m²~21.52m² 46실(전실 독실)
- 개설일: 2006년 8월1일
- 개호 보험 : 동경도 지정 개호 보험특정 시설
- 주거의 권리형태 : 이용권방식
- 이용료의 지불 방법 : 일시불방식
- 별도개호 보험법에 근거하는 이용자 부담(1할) 있음
- 입주시의 요건 : 요개호(要介護)
- 토지, 건물의 권리형태: 임대 계약 30년 자동갱신 조항 있음
- 사업주체: (주) 【메데카재팬】
- 거실부대 설비: 긴급 콜, 옷장(closet), 온수세정 기능 화장실, 세면, mini
키친, 냉난방설비, 스프링쿨러
- 협력 병원: 의료법인사단은 시마무라(島村) 기념 병원(내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리하빌리테이션(rehabilitation)과, 마취과)
의료법인사단 아이디에스 클리닉(내과, 소화기과, 외과, 항문과)
의료법인사단 니혼바시(日本橋) 클리닉(내과, 순환기과, 소화기과)
- 협력 내용: 건강지도, 상담 업무 등 긴급시의 대응 등
- 병설 사업: 통소 개호, 치매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65세 이상이 입소한 사쿠지이 노인 복지시설은 현재 평균88세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었고 전실이 독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시설로 입소노인 60명에 대비 헬퍼(도우미)의 숫자가 70명으로 이곳의 노인들은 최첨단의 유료시설 안에서 노후의 안락함을 한껏 누리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도 시행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일반인 시설급여20%, 재가급여 15% 기타의료수급권자 등 1/2경감시켜주고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요양원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일본은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았을때는 원칙적으로 개호 보험대상 서비스 비용의 90%가 보험으로부터 급여되며, 나머지의 10%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 개호 보험의 피보험자인 생활보호 요보호자(65세이상의 사람 및 40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 부분이 생활 보호법의 개호보조의 대상이 되고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생활 보호 요보호자 (40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개호보험대상 서비스 비용전체가 개호 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한국에서 노인요양원시설이 주거지역에 설립되면 지가, 주택하락, 소독냄새, 긴급자동차 소음공해 등 혐오시설로 인식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같이 일본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대부분은 교외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 있지만,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06년 개정 개호보험법에서는 고령자가 건강상태에 따라 요개호(要介護)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지금까지 지내온 정든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창설되어, 소규모 특별양호 양로원(정원29명이하)을 선호도에 따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주민에게 가까운 시읍면이 작성한「고령자보건복지계획개호 보험사업계획」에 근거 하는 것이며, 또 설치에 즈음하여는 이웃주민에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를 얻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적극적인 설명을 통한 협조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 오오타 이찌바(大田市場 花卉部) 재래화훼시장 ▶



오오타(大田) 화훼는, 동경도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도매시장에는, 전문점이나 양판점, 업무 수요점, 장내중간도매, 장외도매상·지방시장과 같은 동경도 승인 매매인이 2074명 (2009년3월말 현재)이 있어, 거기에서 소비자에게 꽃이 보내지고 있었고, 오타(大田) 화훼의 취급량 (매상고)은, 연간 267억엔을 넘고, 일본 국내 제1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존폐여부결정을 구미시에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 의회의원들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현황을 파악 조사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해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수출품인 국화의 경매장인

오오타 이찌바(大田市場 花卉部) 재래화훼시장을 직접 현장방문 하였다.



이곳 경매현장에서 바라본 구미시 휘모리 국화의 일본 시장내의 신용평가와 점유량 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파악한 시의원들은 이곳의 화훼 경매 책임자인 우에다(上田 潤)씨와 구미 원예수출공사의 수출품인 휘모리

국화의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우에다씨는 2008년도 일본의 절화시장과 2009년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경제상황과 향후 절화시장의 예측 그리고 한국의 국화수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구미시의 휘모리 국화의 최근 수년간의 시장상황은 60%이상이었던 시장점유율에서 말레이시아와 타이에 역전당한상태로 일본 내 점유율이 15% 정도이며, 국화의 품질 신뢰도도 낮아 전체적인 단가가 하락되어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수출 운송수송 즉 비행기로 수출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많은 의견과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은 전반적인 토론을 통해 의논한 후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고, 구미원예수출공사의 TF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III. 결 론

- 이번 11.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시행 된 일본연수는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시의원의 자질향상과 우리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조사를 위해 동경의 여러 시설들을 견학하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향후 의원의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 구미시 의회는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시행되어왔던 기존의 국외연수 방법에서 탈피 KITI (한국지방자치연수원)를 통해 사전 방문지 섭외를 의뢰하였고, 시의회가 지향하는 연수 목적과 부합되는 목적지를 준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일본 연수는

당일 오전6시 의회를 출발하여 나리타공항에 12시40분 도착, 첫날부터 아리아케 하수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허실 없이 알차고 빠빠한 연수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 특히 이번 연수는 일본 현지 가이드 없이 KITI 연수원 직원과 함께 매일 6~8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힘든 연수 일정이었다. 의원들은 이번 연수의 준비 단계부터 연수의 목적을 신중히 생각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이나 시민들이 바라본 기존 시의원의 해외연수는 <외유>일 거라는 비난성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전 모의질문과 자료를 먼저 준비하였고, 현지에서 시설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그리고 직접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첫 방문지인 동경부내의 아리아케 물 재생센터의 방문은 현재 구미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수 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방문하였고, 방문결과 그동안 일본 역시 슬러지로 인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이 시설이 설치된 이후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는 자체 소각하고 있었고, 소각 잔유물은 다시 이용되어 벽돌과 도자기 등의 재활용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었다. 결국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주민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주민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잔유물까지 깔끔하게 처리되는 등 완벽한 시설이 유지 관리되고 있었다. 구미시의 경우 슬러지를 해양투기하다가 최근에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슬러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보강에 대해 신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구미시의 경우 2009년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준비해 놓고도 부지선정에 따른 지역선정 문제점 등으로 인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화장장 건립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쏟아지는 빗속에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방문한 미나미타미 화장장은 당초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설립된 지 오래된 화장장이었지만 책임자의 성의 있는 설명으로 타 지역 **요코하마**의 신설화장장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다. 화장장의 책임자는 이미 화장율이 2009년 현재 90%인 일본의 경우에도 화장장이 집 근처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주민 반발이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와 비슷한 경로를 거쳐 공영화장장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주변 5개시 약 150만명에 2개의 공동화장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운영자금은 전체 통계를 내어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이번 연수의 주 목적이기도 한 동경 大田화훼도매시장의 현장방문은 행정안전부의 요구로 인해 존폐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구미 원예수출 공사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었다. 방문결과 구미시 시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한 현실적인 상황과악과 자료 수집을 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적절하고 충실히 시행할 수 있어 향후 공사 존폐에 대한 협의 및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미시 시의회 측의 사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연구소(KITI) 측의 세심하지 못한 방문지 선정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연구소 측의 거리

조정과 시간조정 등 연수 전체의 미숙한 사전조사과정을 옥에 티로 돌린다면 이번 연수는 향후 기초자치단체 해외연수의 방향 전환 설정에 작은 선례가 될 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 東京都下水道局 제공 : 뉴스 東京의 下水道
- * <http://www.medcajapan.co.jp> 노인유료 복지시설
동경 사쿠지이 클래식 커뮤니티 ‘소요 가제’
- * 南多摩(미나미타마)화장조합 제공 자료
- * UR 都市機構 都市開發Center(☎:048-967-0100)
고시가야 이온 레이크 타운 현장
- * 大田(오오타)이찌바 재래시장(화훼부문)